

간 세포암 치료... 절제술보다 이식술 받은 환자 더 오래 산다

아주대학교 김봉완 교수팀 분석

간세포암에 걸렸을 때 치료방법으로 '간이식술'과 '간절제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현재 간세포암의 가장 효과적 치료방법인 간이식술과 간절제술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김봉완 교수팀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아주대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간절제술을 받은 1,003명 중 간기능이 비교적 양호하고, 간경변증을 동반한 단일 결절 5cm 이하의 간세포암으로 수술받은 493명 환자의 35개 임상 및 병리인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 전 간이 굳어져 간 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간문맥압 7mmHg 이상의 간경변증이 있거나 조직검사에서 미세혈관침윤 소견이 있는 경우, 종양을 제거하는 간절제술

수술전 간경변증 등 있을 경우 효과적 결절 5cm 이하 10년 생존율 90% 높아 교수 "객관적 지표 제시하는 데 의의"

보다 간이식술을 받은 환자군의 장기 생존율이 더 높았다.

대상 환자의 간절제술 후 10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위험인자가 모두 없는 환자군은 86%, 둘 중 한가지라도 있는 경우 60%,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46%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단일 결절 5cm 이하 간세포암으로 간이식술을 받은 환자 63명을 추가 분석한 결과, 간절제술과 달리 두 가지 위험인자가 모두 있더라도 10년 생존율이 90%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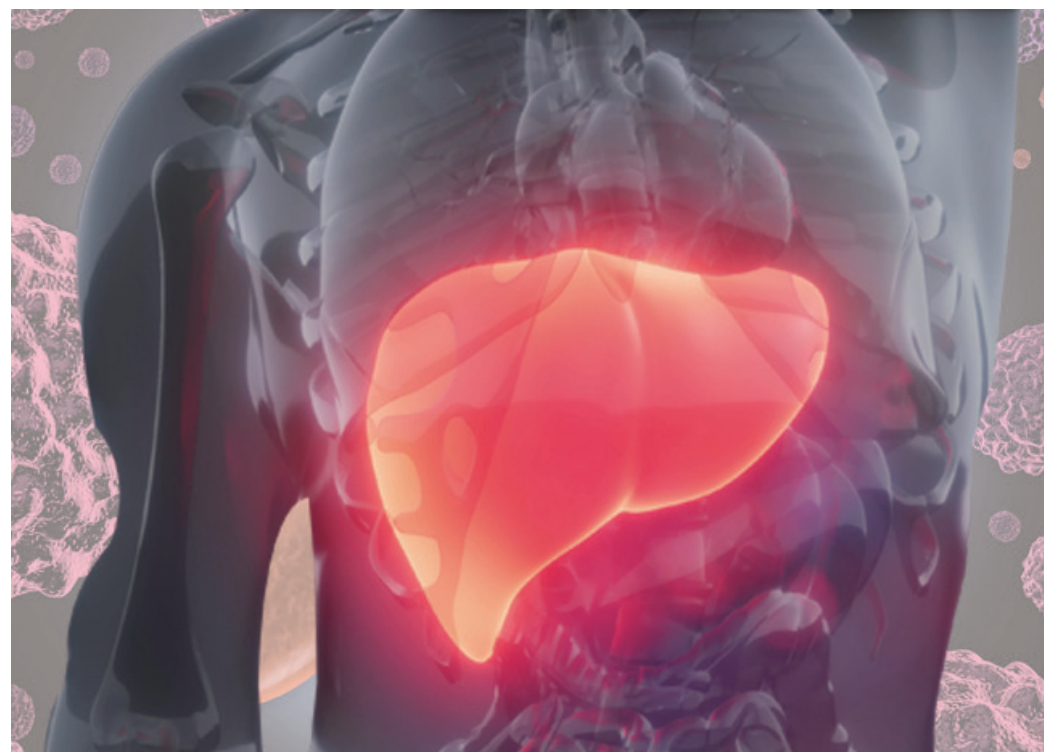
간절제술은 간을 줄 공여자 없이 바로 시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세포암에서 흔히 동반되는 간경변증 등은 그대로 유지돼 간이식에 비해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간절제술 후 재발이 심한 경우 간이식 등의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봉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간절제술 후 심한 재발이 예상되는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간이식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간기능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단일 결절 5cm 이하 간세포암 환자에서 장기 생존을 위해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212개 국제 SCIE 등급의 의과 학술지 중 16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는 국제 학술지 Liver Transplantation(IF: 5.799)에 게재됐다.

정경아 수습기자



대한 에이즈학회장에 최영화 교수
임기 2년... 감염질환 등 임상 연구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최영화 교수가 최근 열린 '2021 대한에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0월까지 2년.

최 교수는 1999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감염내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 아주대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

전문 진료분야는 감염질환·에이즈·예방접종·발열로 국내 감염질환 분야의 임상 및 연구활동을 이끌어 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 및 경기도 감염병 임상시험 연구 수행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에이즈학회는 지난 2007년 창립된 국내 HIV/AIDS 관련 전문 학술단체로, 에이즈에 관한 의학발전과 국민 건강 증대를 위해 활발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이즈는 개선된 진단법과 다양한 신약 개발로 전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이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경아 수습기자

진실이 통하는 대한민국!
경기신문이 만들어 갑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 뛰어넘기를 바라”

BTS, 2년 연속 그래미어워드 '베스트 팝 듀오' 노미네이트



BTS와 실크 소닉(Silk Sonic)의 앤더슨 팩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2년 만에 개최된 방탄소년단(BTS)의 첫 대면 콘서트 대가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BTS 공식 트위터 제공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데 대해 “꼭 수상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둘째 날 공연을 펼치기에 앞서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2022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2년 연속으로 노미네이트된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슈가는 “아직도 얼떨떨하다. 여럿을 때부터 그래미 시상식 보면서 자라왔기 때

슈가 “아직 얼떨떨... 설레고 기대”

RM “작은 순간 모여 기적 이어져”

문에 아직도 거기에 노미네이트 된다는 게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미네이트 되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다. 시상이 될지 안 될지도 쉽지 않은데, 글썽 아직 뭔가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것, 앞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비쳤다.

진은 “아직 저희가 못 받은 상이 그래미 상인데, 그렇다고 다른 상을 받았을 때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다”면서도 “못 받은 게 그래미 이니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슈가는 “한국 속담에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게 있지 않나”라면서 “두 번 정도 짝어서 넘어가면 그것도 욕심 아닐까”라고 했다. 이에 진은 “앞으로 8번을 더 짝어야 하느냐”고 했고, 뷔는 “8번 더 짝으면 진형 나이가 40이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아이코닉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장벽이 느껴진다고도 전했다.

RM은 “최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대상도 받고 그래미 노미네이션도 그렇고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아티스트로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하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렸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런 기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미국 내 ‘아시아인 헤이트’(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RM은 “아시아인을 대표해 말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도 있고, 명확히 볼 수 있는 장벽들도 있다”면서도 “우리 음악이 해외에 사는 아시아인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시아인 헤이트’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7일부터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 공연을 벌이고 있다. 정경아 수습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경기신문! 이제 가판대에서 만나보세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지의 버스정류장, 세븐일레븐, GS25, CU 등 400여곳 가판대에서 판매중

